

# 한글 성서와 초대교인들의 ‘성서신앙’

이덕주

복음전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성서공회의 기본 사역인 성서 번역과 출판과 반포 사업이 지닌 신학적 의미는 실로 크다. 성서 번역이나 출판은 단순한 경전 번역이나 책 만들기가 아니다. 성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겨짐으로 말씀 속에 담긴 복음은 새로운 문화의 토양 속에 뿌리를 내린다. 즉 토착 언어로 번역된 말씀을 읽은 토착민들이 깨달은 진리를 자기에게 익숙한 언어와 문화의 양식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자기 삶의 환경에서 실천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요 1:14)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독교와 그 문화는 ‘낯선 것에서 익숙한 것으로’(from the alien to the familiar) 바뀌는데 그것을 복음의 토착화(土着化, indigenization)라 부른다.<sup>1)</sup> 따라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러한 복음의 토착화, 말씀의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서 번역과 인쇄, 그리고 반포 사업이 이루어지는 ‘말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토착교인들의 ‘말씀 공부’ 모임인 사경회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 1. 사경회와 부흥운동

한국교회의 사경회(查經會)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사경회 강사나 수강생들이 모두 교재인 한글 성서를 지녀야 한다는 사경회 특수성을 감안할 때 쪽복음 형태로나마 국내 번역본들이 여러 종류로 다량 인쇄되기 시작한 1896년 이후에야<sup>2)</sup> 본격적인 사경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착교인들의 사경회에 대한 언급으로는 1897년 8월 말 서울에서 개최된 장로회 연합공의회에서 북장로회 선교사 베어드(W. M. Baird)가 선교 계획을 보고하

1)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27-32;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한글 성서 최초 완역 100주년의 역사신학적 의미”, 102-107.

2) 영국성서공회 연례 보고에 의하면 1895년에 한글 4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각기 1,500부씩 인쇄하였는데 1896년에는 마태복음 5,000부, 마가복음 5,000부, 누가복음 6,500부, 요한복음 5,000부, 사도행전 5,000부 도합 26,500부를 인쇄하였고 1897년에는 이들 4복음서와 사도행전 외에 갈라디아서 6,800부, 야고보서 6,800부, 베드로전후서 6,800부, 골로새서 6,800부, 빌립보서 6,800부를 인쇄하였다. 그리고 1898년에 이르러 마태복음 19,300부, 마가복음 19,300부, 로마서 6,800부, 고린도전서 6,800부, 빌립보서 6,800부, 골로새서 6,800부, 데살로니가전후서 6,800부, 디모테전후 디도 빌레몬서 6,800부, 히브리인서 6,800부, 요한일이삼 유다서 6,800부를 인쇄하여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신약성서를 쪽복음 형태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BFBS* (1896), 242; *BFBS* (1897), 242; *BFBS* (1898), 265; *BFBS* (1899), 280.

는 가운데 “평양으로 리샤하고 쏘 평양에 사경회를 쥬장하고”<sup>3)</sup>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로 미루어 1897년 이전 평양지역에서 사경회가 실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듬해(1898년) 6월과 7월 평양과 부산에서 개최된 사경회에 대한 기사가 「그리스도신문」에 실렸다.

“지나간 른월과 칠월 두 달 동안을 평양교회에서 사경회를 하였는데 여러분 목사들이 성경에 김흔 뜻을 교우들의게 힘써 만히 가르쳤더라. 쏘 부산셔도 지나간 칠월에 사경회를 하였는데 목사 아담씨가 십여명 교우들의게 누가복음 혼 권을 다 즈세히 공부시켰더라.”<sup>4)</sup>

평양 사경회에서 두 달 동안 무엇을 공부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부산에서는 한 달 동안 누가복음 전체를 배웠다. 이처럼 평양과 부산에서 개최된 사경회가 장로교회의 경우라면 감리교회의 경우는 1899년 1월 개최된 평양 사경회에 대한 보고가 남아 있다.

“우리 교회에 유익한 것은 성경을 공부함이라. 이럼으로 지는 히 음력 十二月 二十일 위시하여 사경회를 실시하였는디 각처 교우들과 본교회 형제지킴 중 공부를 힘쓰는 사람 스십여인이 목사 덕에 모히여 체계히 깃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춤 아함시로 열히시시지는 로마인서를 공부하고 오후 두시로 네시시지는 요한 一 二 三서와 디도서와 아각서를 공부하여 혼 달 동안에 하나님의 목우하신 은혜와 목사의 성실히 가르침으로 형제와 지킴들이 믿음 눈을 열어 지식의 유익함을 엿고 각각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케 하였스오니 감사하옵니다.”<sup>5)</sup>

역시 한 달 동안 40여 명이 모여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방금 인쇄되어 나온 여러 종류 사도서신을 갖고 공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사경회가 신약성서 전체가 인쇄되어 나온 1900년 이후 더욱 활성화되었음은 물론이다. 다음은 평양에서 사역하던 미감리회 여선교사 노블(M. K. Noble) 부인이 1903년 가을에 개최할 여자사경회를 소개하면서 쓴 글이다.

“이전에 성경이 부족할 때에는 누구든지 성경을 혼시 동안만 보고져 하여도 돈 십원을 내야 보았거니와 지금은 누구든지 성경을 사셔 자기 집에 두고 늘 공부할 수 있는 거슨 감사한 일이요 쏘한 사경회 가르치는 거슨 반년할 열심케 하고 오릭도록 성경공부한 선성들이 갑업시 오는 이에게 가르칠 터이니 이는 믿는 사람의 일치 못할 맛당흔 도흔 기회니라.”

3) “장로교회 회의할 말”, 「그리스도신문」(1897. 9. 16).

4) “사경회”, 「그리스도신문」(1898. 10. 22).

5) 오석형, “평양교우 편지”, 「대한크리스도인회보」(1899. 3. 22).

누구든 원하면 성서를 구해 읽을 수 있게 된 교회 환경이 성경공부와 사경회를 활성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노블 부인은 성서를 ‘아버지 편지’로, 사경회를 ‘아버지 편지 보러가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성경은 하느님이 우리의게 주신 편지니 우리의게 주신거슬 다 열심히 공부하고 십  
 흘 거시오 우리 아버지의 편지와 경계를 아모 디이던지 ㄹ르치는 이가 잇스면 시작하  
 기 전 두어날 동안에 사경회 올라가는 길노 큰 무리가 늘 ㄹ득히 단닐 터이니 그런고  
 로 다른 빅성이 못기를 무슴 일노 이러케 모혀가노호 하면 다 열심히 디답하기를 예  
 비홀지니 우리 아버지 편지보러 가노라 내가 여호와의 던에 영원이 살이로다 하며(시  
 二十三〇六) 우리와 ㄹ치 모든 사릅이 다 디접을 밧을 터이니 우리 ㄹ치 갑세다 우리  
 와 흠의 하느님 압흐로 나갑세다 홀지니라.”<sup>6)</sup>

이렇게 사경회가 활성화되면서 그 형태와 내용도 다양해졌다. 처음엔 성서 공부만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서 공부 외에 기독교 교리와 교인생활에 관한 기초 과정  
 도 삼입했고 오후에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전도활동도 벌이고 저녁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집회를 열기도 했다.<sup>7)</sup> 사경회 기간도 1-2주 정도로 축소되었으며  
 교회 단위로 실시하기도 하고 지역 내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실시하기도 하였다.  
 연합 사경회를 ‘도사경회’(都查經會)라 불렀는데 평양에서 열린 도사경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구체적인 증언을 평  
 양노회 역사기록(1925년)에서 읽을 수 있다.

“[1907년] 一月 六日부터 平壤城에서 平南都查經會를 開호고 八所로 分호야 工夫호  
 며 各學校에서도 聖神밧기 爲호야 祈禱會를 開호였는디 金燦星이 崇德學校에서 祈禱  
 會를 引導호며 路可福音 十五章에 蕩子悔改比喻로 講道홀 時 三百餘名 小學生 一同  
 이 大聲痛哭호며 或昏倒氣節호며 罪를 自服호미 所聞이 卽刻으로 查經會 各所에 遍  
 傳호니라. 時에 吉善宙가 第八所에서 聖神要理를 教授호더니 聖神이 會衆에 臨호미  
 蔡廷敏이 大聲痛哭호며 罪를 自服호기 始作호야 八所 一同이 一時 悔罪痛哭호였스며  
 每夜에 李吉咸 宣教師의 引導로 禮拜호는 中 忽然히 急호 바람이 臨호는 듯 호더니  
 이우고 聖神이 降臨호매 滿堂聽衆이 放聲痛哭호며 各其起立호야 罪를 自服호니 哭聲  
 과 自服聲을 分辨키 難호더라.”<sup>8)</sup>

그리고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토착교인들의 사경회와 성경공부에 대한 열정이 더

6) 노블 부인, “사경회 하는 뜻”, 『신학월보』(1903. 5).

7) 예를 들어 1903년 1월 원산감리교회 사경회는 2주간 진행되었는데 공부 과정은 성서에서 『창세기』  
 와 『마태복음』, 교회사 『성사총론』(聖史總論)과 찬송을 배웠으며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기도회  
 (전도집회)로 모였다. “사경회를 함”, 『신학월보』(1903. 5); 조은하, “온전하고 재미있던 날!: 사경회  
 와 대부흥운동에 대한 기독교교육학적 고찰” 『영적대각성 100주년 기념 학술연구: 각성·갱신·부흥』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07), 443이하.

8) 邊麟瑞·姜奎燦·金善斗, 『平壤老會地境各教會史記』(평양: 光文社, 1925), 9.

욱 고조된 것은 물론이다. 토착교인들의 사경회 열정은 대단했다. 그 열정은 다름 아닌 ‘성서를 배우려는’ 학생의 열정이었다.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스왈른(W. L. Swallen)의 증언이다.

“한국인들은 성서 공부에 열정적인 학생들이다. 집에서 공부하고 초등학교, 특수 학교, 중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사경회와 성경학원, 신학교에서도 공부한다. 우리는 성서를 공부하려는 이들의 욕구를 충분하게 채워준 적이 없다. 성서 공부에 대한 열정은 남성 못지않게 여성들도 대단하여 어떤 이들은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삼일씩 걸어오기도 한다.”<sup>9)</sup>

선교사들은 이불과 양식을 짊어지고 이삼일 걸려 수백 리 길을 걸어서 사경회에 참여하는 교인들의 행렬을 보며 감탄하였다. 같은 시기 언더우드의 증언이다.

“한국 교인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뜰히 견뎌 내고 있으며 250명에서 많을 때는 1,180명씩 모여 열흘에서 열나흘 동안 성서를 배운다. 이 같은 대규모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소규모 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북부 지역의 어느 선교지에서는 1년 동안 이 같은 소규모 사경회를 192회 실시해서 연인원 1만여 명을 기록하였다.”<sup>10)</sup>

사경회가 부흥운동의 요인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사경회는 교회 부흥의 요인이 되었다. 사경회와 교회 부흥이 떼어놓을 수 없는 상생(相生) 관계를 맺고 있음은 마켓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성서가 복음화의 제일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요인이 되어왔다. 한국에서 성서는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성서 지식으로 충만하여 그 능력과 영성과 기도 신앙과 관대함을 발휘하고 있다. 성서 공부와 사경회가 한국 교회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설교가 예배 정신을 개발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성서야말로 한국 교회의 신앙과 지식의 기반으로 영적 생활을 추구해나가는 데 필요한 영감을 공급해주고 있다.”<sup>11)</sup>

같은 평양에서 활동했던 북장로회 선교사 블레어(W. N. Blair)의 증언도 마찬가지다.

9) W. L. Swallen, “The Progress of Christianity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이하 *MRW*) (Aug. 1912), 597.

10) H. G. Underwood, “Korea’s Crisis Hour”, *KMF* (Sep. 1908), 131.

11) S. A. Moffett, “Evangelistic Work”, *Quarto Centennial Papers read before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Aug. 1909), 17-18.

“한국 선교사업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경회 제도이다. 개교회별로 매년 1주일 혹은 그 이상 모여 성서를 배운다.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듯 한국 교인들은 그 때만 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오직 성서 공부와 기도에만 전념한다. 이같이 성서 공부에만 전념한 결과 교회전체가 단합되어 사랑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부흥이 가능케 되었다. 이 점에서만큼은 미국도 한국을 본받아 부흥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할 것이다.”<sup>12)</sup>

블레어는 한국교회 사경회를 유대인들의 ‘유월절’(passover) 문화에 비유하였다. 것처럼 사경회는 1907년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신앙축제’, ‘절기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구약성서도 번역되어 ‘성경 전체’를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된 1911년 이후에 그런 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평북 선천에서 활동하던 북장로회 선교사 로스(C. Ross)의 증언이다.

“여러 사람의 수고로 신약은 이미 수년 전에 번역되었지만 구약이 한글로 번역된 것, 즉 성서 전체가 번역된 것은 불과 작년[1910년]의 일이다. 지금까지는 한문을 읽을 수 있는 학자들만 구약 본문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일반 평민들이 처음으로 성서 전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작년은 기념비적인 해라 할 수 있다. 이 점이 사경회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는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은 학자들의 도움으로 [구약 본문을] 이 나라 말로 번역해 [사경회 교재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성서 전체에서 보다 폭넓게 사경회 교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 선교부 선교사든, 다른 지역에서 파견 나온 선교사든, 토착교인이든 누구나 사경회 교사가 될 수 있게 되었다.”<sup>13)</sup>

『성경전서』가 인쇄되어 나온 1911년을 기점으로 하여 신약만 공부하던 사경회가 구약까지 포함하여 ‘성서 전체’(the entire Bible)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신구약 전체를 읽으며 공부하게 된 토착교인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졌음은 물론이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토착교인들의 ‘성서 중심적 삶’은 교회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 2. 성서 암송과 말씀 실천

선교사들은 토착교인들의 신앙성숙과 교회부흥을 이끌어낸 한국교회 사경회를 부

---

12) W. N. Blair, “The Korean Pentecost and Other Experiences”,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 Which Followed*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 67.

13) C. Ross, “A Bible Institute System”, *KMF* (Sep. 1911), 253.

러워했다. 그런데 사경회에 참석할 교인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참석했다. 다음은 1903년 가을에 실시한 평양지방 감리교 여자사경회에 대한 광고이다.

“오는 가을 사경에 오실 회원 녀인들은 미리 아래 기록한 과정대로 공부하시면 공부할 때에 도움과 즈미 만히 얻으실줄 아옵느이다.

공부할 것: 히브리인서 성스총론 성경디도 위싱학

외울 것: 요한복음 십칠장

볼 것: 으모권면.”<sup>14)</sup>

이 기록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외울 것’이라고 표기된 성서 본문이다. 사경회 참석자들에게 미리 요한복음 17장을 외울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러한 ‘성경 외우기’, 즉 ‘성서본문 암송(暗誦)’은 초기 한국교회 사경회에서 나타났던 특이한 현상으로 한국 고유의 ‘경전 문화’(經典文化)를 반영한 것이었다. 즉 불교나 유교 등 한국의 전통 종교에서 경전(經典)을 공부할 때 우선적으로 ‘외우게(암송)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서당에서 학동들이 훈장 앞에서 천자문과 동몽선습, 소학 등 경전을 ‘외우며’ 공부하듯 사경회에 참석한 교인들도 성경을 ‘외워가며’ 공부하였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이런 한국교인들의 성서 암송에 대해 경이로운 찬사를 보냈다. 1908년 개성 사경회에 참석했던 미감리회 선교사 데밍(C. S. Deming)의 증언이다.

“한국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복음서 공부와 관련하여 다음 세 사람에게 대한 사경회 보고가 내 관심을 끌었다. 개성에 맹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그의 눈이 되어 복음서 전체를 외우게 되었다.<sup>15)</sup> 그는 복음서 전체를 순서대로 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무 장, 아무 절이나 물으면 정확하게 기억해 낼 수 있다. 또 한 사람은 속장인데 그는 말씀 공부에 전념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외울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사람은 매서인인데 성서에 통달하여 어느 구절을 읽든 그 장과 절까지 정확히 집어 낼 수 있다.”<sup>16)</sup>

데밍은 계속해서, “과연 미국에 이 정도 할 수 있는 교인이 얼마나 될까? 설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서양생활에서는 이곳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명상과 침묵으로 성경을 배우는 깊은 맛을 볼 수 없을 것이다.”며 성서 본문을 줄줄 외우는 교인들이 많은 한국교회에 부러움을 표하였다. 이런 한국교회의 ‘성서

14) “가을 사경회 공부과정”, 『신학월보』(1903. 5).

15) 개성의 ‘맹인 전도자’ 백사겸(白士兼)을 지칭한다. 어려서 맹인이 되어 점술가로 살던 백사겸은 1897년 경기도 고양에서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후 훗날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되는 아들(백남석)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외웠는데, 그는 전도자가 되어 파주와 장단, 개성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이덕주, “점장이 출신 맹인 전도자 백사겸”,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개종이야기』(서울: 전망사, 1990), 38-47.

16) C. S. Deming, “The Korean Christian”, *KMF* (Jun. 1906), 153.

암송' 열정에 대한 미국교인들의 '부러운' 평가는 1910년 12월 미국의 저명한 선교 운동가였던 아버지(Arthur T. Pierson)와 함께 내한해서 한국교회 부흥운동 현장을 목격했던 피어슨(Anna. W. Pierson)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때부터 성서는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책이 되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강하게 된 비결은 성서가 그들의 일용양식(daily food)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밤이든 낮이든 성서를 읽는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성서를 사랑하는 민족일 것이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성서를 갖고 다니며 부인과 아이들은 성서를 책보에 싸서 허리에 묶고 다닌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모두 상당량의 성서 구절을 외우고 있으며 어린 아이들까지 1년에 수천 절씩 외우려 노력하는데 신약 전체를 외울 때까지는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은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 한다.”<sup>17)</sup>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선교현장을 방문했던 미국교인의 눈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서를 사랑하는 민족”(the greatest Bible lovers in the world)으로 비쳐질 정도였다. 그러면서 피어슨은 방한 중에 만난 선교사 게일의 증언을 통해 들은 한국교인의 '색다른' 성서 외우기 방법을 소개하였다.

“한 남자가 1백 마일을 걸어서 게일 박사를 찾아왔는데 방문 목적이 무엇이나고 물으니 ‘성서 말씀 가운데 얼마를 외우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남자는 게일 앞에서 ‘산상설교’ 전체를 한 군데도 틀리지 않고 외워 보였다. 게일 박사가 그에게, ‘성서는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했더니 그 남자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바로 그런 식으로 내가 외웠습니다. 처음에 성서 구절을 외우려 노력했는데 도무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절을 외우고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더니 모두 외우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sup>18)</sup>

이처럼 '실천하면서 외우는'(memorizing with practice) 한국교인들의 '성서 신앙'에 선교사들은 감동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런 토착교인들의 '말씀 실천' 신앙은 이미 선교 초기부터 나타난 현상이기도 했다. 성서를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신앙이었다. 인천지방에서 사역하던 미감리회 선교사 존스의 1901년 선교보고서에 나오는 강화 교인들의 믿음이 그러하였다. 그는 먼저 토착교인들의 독특한 '성서관'(聖書觀)을 소개하였다.

17) Anna. W. Pierson, “Korea - The Land of Opportunity: Invest Now Big Returns!”, *MRW* (Apr. 1911), 270.

18) Anna. W. Pierson, “Korea-The Land of Opportunity: Invest Now Big Returns!”, 270. 이와 비슷한 내용이 존스의 기록에도 나온다. G. H. Jones,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ew York: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10), 48.

“지난 해 강화도 사역에서 힘이 되었던 부분은 성서 공부, 특히 복음서 이야기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기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성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서양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성서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서가 아주 귀해 성서를 손에 넣는다는 것은 큰 상을 받는 것과 같이 여겨지며, 성서를 구한 사람은 성서 공부에 매진하는데 그 결과가 아주 유익한 것으로 나타나곤 합니다.”<sup>19)</sup>

존스는 한국 토착교인들이 성서를 혼자 공부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에서 서양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였다.

“그들은 종종 성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엉뚱한 해석을 하곤 하는데,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진흙을 개어 바르셨다는 기사를 읽고 그대로 해서 오늘에도 그런 이적을 재생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 같은 ‘문자적 해석’을 바탕으로 교인들은 아름다운 행위를 하곤 하는데,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전혀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sup>20)</sup>

복음서에 나오는 이적 기사를 ‘문자적으로’(in a literal sense) 받아들이고 그것이 현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본문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토착교인들의 믿음을 보고 선교사들은 곤혹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문자적 해석’(literal interpretation)의 적용이 ‘놀라운’ 신앙의 승리로 연결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였다. 존스는 그 대표적인 예로 강화 홍의교회 교인 종순일(鍾純一)을 들고 있는데, 마을 부자였던 종순일은 기독교인이 된 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빛을 탕감해 주지 않은 불의한 종의 비유’를 읽고 그 본문을 ‘문자적으로’ 실천하여 자기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의 빛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그 사실은 「대한그리스도인회보」에도 실렸다.

“양력 스월분에 강화 홍의 교우 종순일씨가 저의 죄를 하느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을 깨닫고 무한 감사하며 또 성경 말씀을 심각하고 스스로 고아디 하느님께서 나의 천만량 빛을 탕감하여 주셨으니 나도 늪이 내게 빛진 사름들을 모도 청하여 노코 성경 말씀으로 연설하여 전도한 후에 빛준 문서를 그 사름들 압해서 즉시 불을 노호니 탕감하여 줌을 받은 자들이 크게 감복하여 영화를 하느님의 찬송하고 서로 공론되 세상 사름이 빅디 업는 빛도 있다 하여 괴인취물하는 자 잇거늘 예수교를 믿는 사름은 저기 돈까지 버려 늪에게 적선하니 춤 거룩한 일이라 혼다더라.”<sup>21)</sup>

19) G. H. Jones, “Chemulpo Circuit”, *KMEC* (1901), 37.

20) *Ibid.*, 37.

21) “강화신식”, 「대한그리스도인회보」(1900. 6. 6).



중순일의 이러한 ‘빛 탕감 잔치’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개종이 늘어났음은 물론이다. 강화읍에 살던 김씨 부인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실천하였다. 김씨 부인은 혈육과 친척도 없이 ‘복섬이’란 여종을 데리고 살던 외로운 팔십 노인이었는데 교인이 된 후 한글을 배워 성서를 읽던 중 역시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깨달은 것을 ‘문자적으로’ 실천하여 노비를 석방하였던 것이다. 1903년 7월 「신학월보」에 그 기사가 실렸다.

“날마다 언문을 힘써 공부하여 나중에 언문성경을 보기에 이르러 성경 뜻을 상고함에 중 두는 것이 또한 큰 죄인 줄을 깨닫고 갈아대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한 형제라 내가 엇지 감히 하나님 압해서 주인이 되어 죄를 범하리오 하고 하로날은 교중 형제를 청하여 그 중 복섬이를 불너안치고 마태복음 십팔장 십오절부터 이십절까지 읽은 후에 조흔 말삼으로 몇마디 하신 후에 종문서를 불사르고 그 종의게 날너갈아대 내가 금일부터는 너를 종으로 알지안코 내의 딸노 아노라 하고 주일마다 한가지로 레배당에 열심으로 다니시니 종되던 녀자가 깃분 마음이 충만하여 친어머니갓치 섬기며 날마다 원 집안이 화목한것치 충만하니 하나님의 만만감사할 일이다.”<sup>22)</sup>

김씨 부인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8-19)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땅에서 매인 것을 풀어주는’ 의식으로 노비문서를 불살랐던 것이다. 이처럼 중순일이나 김씨 부인처럼 한국 초대교인들은 성서 본문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려 애쓰기보다 ‘문자적으로’ 실천하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한국 초대교회에는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보다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형성되었다.

물론 존스가 지적인 바와 같이 이러한 성서의 ‘문자적’ 해석과 적용이 갖고 있는 한계와 오류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전에 대한 종교적 경의를 강조한 결과 책 자체에 어떤 초월적 능력이 있다는 신념에서 성서를 독서의 대상이 아닌,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sup>23)</sup> 그런 경우 성서를 읽기보다는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종교심을 표현하였다. 또한 성서 본문에 대해서도 그 인쇄된 문자(문장)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한 결과, 한번 인쇄된 본문은 ‘일 점 일

22) 김우제, “우리나라에 드문 일”, 「신학월보」(1903. 7).

23) 예를 들어 1907년 당시 평양에서 활동하던 미감리회 여선교사 폴웰(E. D. Follwell) 부인은 ‘마들린’이란 토착 전도부인이 시골에서 성서를 팔 때 사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책을 훼손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해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어나 이 책을 가지고 놀다가 찢으면 안 되니까 선반 위에 모셔 놓아야 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들어서 선반 위에 공손하게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고 하면서 팔았다고 증언하였다. “Cheap Paper”, *KMF* (Jun. 1907), 87.

획도' 번개해서는 안 될 '절대 본문'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적 '문자주의'(literalism) 성서 이해가 성서에만 '절대 권위'를 부여하는 배타적 '근본주의'(fundamentalism) 신앙교리와 결합되면서 성서 본문을 바뀐 '시대의 언어'로 새롭게 번역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성서 본문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적용을 시도하는 모든 학문적 노력을 '파괴적' 비평이라 규정하여 일절 거부하는 '폐쇄적' 성서관(聖書觀)이 형성되었다.<sup>24)</sup> 그 결과 '파괴적' 시도를 거부한다는 명분 아래 성서 비평학이 지니고 있는 '건설적' 기능마저 봉쇄해버림으로 성서학의 후진성을 가져왔고 교리와 신학의 포로가 된 성서는 교리와 신학, 신앙 언어 밖의 사람들에게 '단힌' 책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문자주의적' 해석과 적용의 오류와 한계가 앞서 살펴본 한국 초대교인들의 '문자적' 실천신앙에 배태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지만 아직은 초대교인들의 이러한 '말씀 실천'이 교리나 신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성서 본문을 읽으면서 얻은 '신앙적 열기'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 순수성과 가치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선교사들이 종종 표현한 것처럼, 이런 토착교인들의 '어린아이 같은'(childlike) 말씀 실천이 한국 초대교회 부흥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초대교회의 '말씀 실천' 신앙이 1907년 부흥운동과 1911년 신구약 『성경전서』 출간으로 한층 강화되었음은 물론이다.

### 3. 한글을 깨우고 지킨 성서

성서 말씀이 한글로 번역됨으로 우리 민족 역사와 문화 속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는 한글로 번역, 인쇄된 성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누구든 기독교 복음을 배우고 깨우치기 위해서는 성서를 읽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한글을 깨쳐야 했다. 그래서 선교 초기에 교회마다 신입교인들을 위한 한글 공부 과정이 개설된 것이다. 성서를 공부하기 위해 모인 사경회에서도 문맹자를 위한 한글 공부는 필수 과목이었다. 신구약 『성경전서』가 출간되어 나온 1911년 1월, 전북 김제 구봉리교회에서 개최된 사경회에 관한 「예수교회보」 기사다.

24) 예를 들면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로회는 창설과 함께 『장로회신경』을 제정하였는데 그 신경의 제1조를 “신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밋고 형홀 본분의 확실흔 법례인디 다만 이밧의 업느니라.” 하였던 바, “이밖에 없느니라.”란 표현에서 성서에 부여한 '배타적' 권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장로교회의 배타적 성서관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고착화되어 1929년에 개정된 『조선예수교장로회 신경』 제1조에 “新舊約 聖經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信仰과 本분에 對하여 正確無誤한 唯一의 法則이니라.”라고 하였던 바, '정확무오한'이란 표현에서 당시 서구 자유주의신학 계열의 성서 비평학에서 제기하던 '본문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대응자세를 읽을 수 있다. 이덕주, “한국교회와 근본주의: 한국교회사적 입장”, 한국교회사학연구원편, 『한국기독교사상』(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27-28.

“주일에 빅여명 가람이 레빅하는 중인디 혼가지 섭섭흔거슨 부인 중에 성경 못보는 이가 만흔고로 전에 리즈익 장로 계실 때에 상품을 주기로 하고 언문공부를 식히려 하 되 종시 빅호는 이가 업섯더니 금년 정월에 하느님씨서 사랑을 베프샤 녀사경회를 열고 최부인과 박부인이 열심히 오일 동안을 그르칠식 미일 상오에는 두시간식 예수형적 공부를 보통으로 빅호고 하오에는 두시간식 그소에 눈와 혼 소는 글 보시는 의의게 성경을 그르치고 혼 곳에서는 글 못보는 의의게 국문을 그르쳤는디 불과 그 四일에 성경을 좀 보는 즈미가 두어 분 되고 열심히 빅호려하시는 이가 만흔으로 두 부인이 더욱 열심히 그랑함으로 그라치고 즈미를 만히 봄으로 영광을 상쫓고 돌려녔다 하며 뜻밖의 다음 주일에 성경을 보는 이가 四 五인이오 방금 공부하는 이도 만흔 즉 장츠 성경을 그음디로 보고 은혜를 더욱 밧을 희망이 잇다더라.”<sup>25)</sup>

훗날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세 번이나 역임하게 되는 이자익(李自益) 목사가 장로로 시무하던 시절, 교회 부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상품까지 내걸었는데도 호응이 없다가 한글 성서가 보급되고 테이트(L. B. Tate)와 버클랜드(S. Buckland) 등 여선교사들이 지도하는 부인사경회가 열리면서 분위기는 급변하여 자진해서 한글을 배우려는 여성들이 늘어났다는 기사다. 바로 성서 속에 담긴 ‘말씀’의 매력이 낯선 것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한국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봉건 시대 학문과 교육의 사각지대였던 여성계에 비로소 배움의 장이 열렸다.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의사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교회를 통해 한글을 깨치고 성서를 읽으면서 새로운 자의식(自意識)을 형성하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문맹(文盲)의 세계에 갇혀 있던 여성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인쇄 반포된 성서의 언어가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한글이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 특히 성서 번역과 인쇄에 참여했던 선교사들은 ‘성서 언어’로서 한글이 지닌 우수성과 효율성에 감탄하였다. 게일의 한글에 대한 평가다.

“한국의 토착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것임이 분명하다. 1445년 창안되었음에도 너무 오랫동안 먼지 속에 묻혀 지내면서 자신을 알아줄 이를 기다렸다. 쓰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너무 쉽다는 이유로 그동안 경멸을 받아 왔다. 부인네들이라도 한 달 정도면 깨칠 수 있으니 것처럼 쉬운 글이 또 있을까? 바로 이와 같은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그 문자는 신약성서와 기독교 문서를 찍어내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까지 성서와 기독교 문서들은 대부분 놀랄 정도로 간편한 이 문자를 통해 인쇄되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놀라운 섭리라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문자가 4백년의 긴 잠을 자다가 마치 자명종 소리에 놀라 깨어나듯 이제 일어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전하고 있다는 점이다.”<sup>26)</sup>

25) “사경회 효력”, 『예수교회보』(1911. 3. 28).

26) J. S. Gale, *Korea in Transition*, 137-138.

‘4백년의 긴 잠에서 깨어난’ 한글. 게일은 그 한글을 4백년 후에 이루어질 복음전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은총’으로 표현하였다. 게일은 1912년 2월 종로 성서회관 봉헌식에서 행한 “성서에 대한 조선의 예비”(Korea’s Preparation for the Bible)란 기념강연을 통해서도 한글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으로 표현하였다.

“우리가 알지 못한 예언적 은총으로 한국인들은 이미 466년 전에 참으로 편리한 문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니 노인이든 돈 없는 자든, 노역자든 죄인이든, 안방 부인이든 어머니든, 방앗간 종이든 백정이든, 떡 만드는 자든 갓 수선공이든, 물장사든 두부장사든, 점쟁이든 무당이든, 어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글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이들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간편한 문자 덕분에 우리는 성서 말씀을 이 금단의 나라에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나라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에덴동산으로부터 갈릴리 바다에 이르는 친숙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sup>27)</sup>

한글의 유용성과 효율성을 간파한 선교사들은 선교초기부터 한국에서 출판하는 기독교 문서들의 기본언어로 한글을 채택하였다. 즉 1893년 1월 개최된 장로회선교공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성서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과 “모든 문서는 한문을 섞지 않고 순전히 한글로 인쇄한다.”는 방침을 채택함으로써<sup>28)</sup> 성서와 찬송가뿐 아니라 기독교 문서들은 한글로 번역, 인쇄되었다. 창제된 이후 4백년 동안 한문을 숭상하는 양반 지식인 문화에 의해 철저히 외면되고 억압받았던 한글이 기독교 선교와 함께 긴 잠에서 깨어나 쉬우면서도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언어기능을 발휘하게 되었으니 기독교가 한글의 도움을 받은 면도 있지만 한글도 기독교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소외된’ 문자로 소멸될 수도 있었다. 그 점에서 성서와 한글은 상생(相生) 작용을 한 셈이다. 신구약 『성경전서』가 출간되어 나온 직후 「예수교회보」에 실린 사설이 그 점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이 국문이 발달된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니 하나님께서 스백년 이전에 세종대왕으로 하여금 이 국문을 예비치 못하게 하셨더라면 오늘날을 당하여 하나님의 도리가 十三도 각 군에 광포될 길이 만무하고 또 조선 전국 가운데 중학교 대학교가 업슬거시오 또 녀즈를 교육하는 학교는 하나도 업섯슬 터이니 그런즉 우리 국문은 도덕의 주초요 학문의 기지가 되어 마치 넷날 로마국 강경하던 시대에 희랍문자가 신약성경의 본문이 되었고 외타 학문의 썩어 썩고 방불치 아니한가. 그런고로 우리

27) 게일은 ‘한글’ 외에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하나님 개념’과 ‘하나님 신앙’, 그리고 ‘성서 내용과 일치된 생활 습관’, ‘문서와 책을 존중하는 전통’을 하나님의 ‘예비 은총’으로 거론하였다(J. S. Gale, “Korea’s Preparation for the Bible”, *KMF* [Mar. 1912], 88).

28) C. C. Vinton,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MRW* (Sep. 1893), 671.

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의 국문 출처를 기인 기인이 연구해야 모로논 사람이 업기를 원  
호노니 아름답다 국문이어.”<sup>29)</sup>

“하나님께서 4백년 전에 세종대왕으로 하여금 국문을 예비하게 하셨다.” “훈민정  
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아름답다 국문이어.” 등의 표현에서 초기 한  
국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을 읽을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성서를 통해 재발견한 한  
글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전  
통을 말살하려는 일제시대 무단통치가 시작되는 시기(1911년)에 이런 언급과 표현  
을 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 이광수(李光洙)는 한글과 기독  
교, 특히 성서번역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였다.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朝鮮人에게 준 것은 실로 耶穌敎會외다. 귀중한 新舊約과  
讚頌歌가 한글로 翻譯되며, 이에 비로소 한글의 權威가 생기고 또 普及된 것이요. 昔日  
에 中國經傳의 諺解가 있었으나 그것은 普及도 아니 되었을 뿐더러 翻譯이라 하지 못하  
리만큼 拙劣하였소. 소위 吐를 달았을 뿐이었소. 그러나 聖經의 翻譯은 毋論 아직 不完  
全하지마는 純朝鮮말이라 할 수 있소. 아마 朝鮮글과 朝鮮말이 真正한 意味로 高尚한 思  
想을 담는 그릇이 됨은 聖經의 翻譯이 最初일 것이요. 만일 後日에 朝鮮文學이 건설된다  
하면 그 文學史의 第一項에는 新舊約의 翻譯이 記錄될 것이외다.”<sup>30)</sup>

1911년 신구약 66권이 순 한글로 번역, 인쇄되어 나온 것은 15세기 한글 창제 이  
래 ‘한 권의’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어휘와 문장을 담은 것이 되어 한글로 모든 사  
상, 모든 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나아  
가 성서와 기독교 문서를 통해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한 ‘민족주의’ 학자들에 의해  
한글의 과학적 연구와 실용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미 1890년대 배재학당 재학 중  
한글 성서를 출판하던 미이미교회인쇄소에서 한글 조판 일을 하다가 한글의 가치를  
깨닫고 평생 한글 연구에 매진한 주시경(周時經)을<sup>31)</sup> 비롯하여 그의 제자 김윤경·최  
현배·강병주 등 기독교인 한글 학자들이 일제시대 한글운동을 통해 민족 문화와 전  
통을 지켰던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지고 성서가 한글로 번역되는 사  
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한글은 더 오랜 세월 깊은 잠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  
다. 그런 점에서 최현배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거룩한 뜻이 기독교에서 실현  
된 것”이라 한 것이나<sup>32)</sup> 전택부가 “한글 성경은 한국 국어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29) “조선국문의 필요”, 『예수교회보』(1911. 5. 16).

30) 이광수, “耶穌敎의 朝鮮에 준 恩惠”, 『靑春』 9 (1917), 7; 김희보, “춘원 문학과 성서”,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4.

31) 이덕주, “주시경의 종교행적과 신앙”, 『초기 한국기독교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471-500.

32) 최현배, “기독교와 한글”, 『신학논단』 7 (1962), 76.

사건”<sup>33)</sup>이라 표현한 것은 정확했다.

이처럼 기독교는 ‘잠들었던’ 한글을 깨쳤을 뿐 아니라 ‘멸절의 위기’에서 한글을 지켜냈다. 일제는 식민통치기간 내내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 전통을 말살하고 일본의 그것으로 흡수통합하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1910년 강제합병과 함께 한글은 ‘국어’(國語)라는 칭호를 일본어에 넘겨주고 ‘보조 언어’로 내려앉았다. 관공서와 학교의 공식 언어는 일본어가 되었고 1930년대 들어서면서 한글은 일상생활 용어로도 제한을 받았다. 이에 맞서 한글과 한민족의 문화전통을 고수하려는 어떤 시도든 그것은 정치적 저항운동으로 해석되어 갖은 탄압과 박해를 받았다. 김윤경과 최현배를 비롯하여 다수 기독교인 한글학자들이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조선어 학회사건’(1942년)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글은 공식석상에서 사용해서는 안 될 ‘금기어’(禁忌語)가 되었다. 기독교 예배와 집회에서도 일본어 사용을 강요받았고 모든 기독교 문서도 일본어로 인쇄되었다. 이런 ‘절명의 위기’에서 마지막까지 한글을 지킨 것이 성서였다. 비기독교적인 성격의 일본 정부가 한국교회에 ‘일본어 성서’ 사용을 강요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해방되는 그 날까지 강단에서 한글 성서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서에 ‘한글의 마지막 지킴이’란 별명을 붙여줄 수 있게 되었다.

- 이덕주, “성서 중심의 생활신앙,”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64~129페이지 중에서 발췌

---

33) 전택부, “기독교와 한글”, 『나라사랑』 36 (1980), 142.